

시즌 6

제1차

| 국어는 이감 |

이감 국어

모의고사

예비평가 지문 분석

 이감

[16~21] 과학-인문 : 인간 생명의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인가?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생리학 - 배아

수정란, 배아, 태아, 주장, 난할, 할구, 상실배, 포배, 착상, 분화 전능성

인문 - 윤리학 - 도덕적 지위의 시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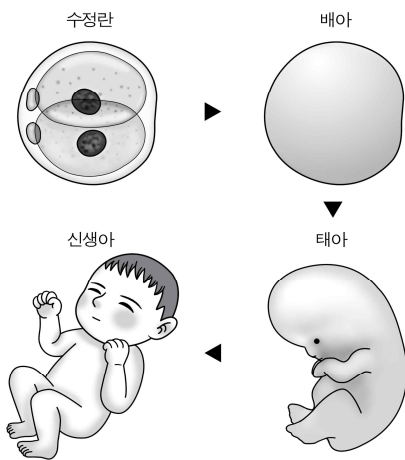
도덕적 지위, 의료계, 상어, 개별자, 마르퀴스, 오더버그, 실체적 종류, 단계적 종류

* 지문 분석

문단1 : 시작점 문제

- 1) 인간은 수정란, 배아, 태아, 신생아라는 연속적인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

⇒ 상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 2) 쟁점 1 : 이 과정을 엄밀하게 구분할 수 없을뿐더러[→ 어디서부터 '배아'라고 봐야 하는지, 또 어디서부터 '태아'라고 봐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을뿐더러], 이 중에서[→ 수정란, 배아, 태아, 신생아 중에서] **인간 생명의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인가의 문제**[→ 어디서부터 사람대접을 해 주는 게 맞는 걸까? 줄여서 '시작점 문제'라고 불러 보자.]는 생명 공학이나 윤리의 측면에서 가장 난해한 질문 중의 하나이다.

⇒ '시작점 문제'는 동전을 던져 정할 수도 없는 일이고

- 3) 어느 시점부터 인간이라 할지의 경계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힘들데, 존엄성이나 **도덕적 지위**의 부여 문제가 그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합의하기도 어렵다. 다양한 도덕적 주제가 얹혀 있기 때문이다.

[백략 짚기] 미리 말하면 '쟁점 1'은 문단2에서 다뤄진다.

- 4) 쟁점 2 : 실제로 치료 목적의 연구를 위해 **배아를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의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백략 짚기] '쟁점 1'로부터 파생된 '쟁점 2'이다. 미리 말하면 이건 문단3~8에서 다룰 게다.

문단2 : 수정란설과 반론

- 1) 수정란설 : 인간 개체의 발생은 **수정란**에서 시작되므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 '수정란설'이라고 불러 보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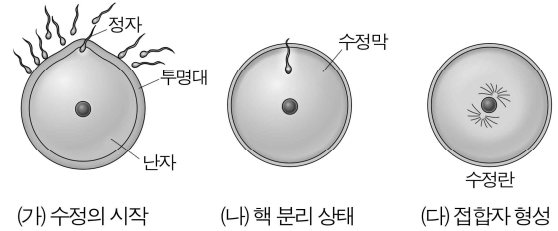
⇒ 대략 이런 주장이겠다. "수정란부터 사람이야 사람!"

- 2) 그런데 수정조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일어난다.

[백략 짚기] '수정란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하고 있다.

- 3) 수정의 과정 : 즉 정자가 난자의 세포막을 침투해 들어가 수정의 과정이 시작된 뒤 한동안 정자와 난자의 핵은 여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다가 십여 시간 후에야 합쳐져 수정란이라 불리는 접합자가 형성된다.

[백략 짚기] '수정의 과정'을 살짝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 4) '수정란설'의 문제점 1 : 수정의 순간을 생명의 시작으로 본다면 어느 시점을 수정의 순간이라 해야 할지 모호한 것이다.

⇒ '수정란설'에 대한 반박이다. 대략 이런 반박인 게다. "그래. 수정란부터 인간이라고 치자. 그런데 수정란은 어디서부터 수정란인데?"

- 5) '수정란설'의 문제점 2 : 더구나 수정란의 30~40% 정도는 자궁에 착상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된다.

⇒ 수정란이 인간이라면 개체의 30~40%는 초기에 살해(?)되고 있는 셈이다. '수정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배출된 30~40%의 수정란에 대해 장례라도 치러 줘야 할 거 같은데 좀 곤란한 주장으로 들리기는 한다.

- 6) 수정란설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 : 이러한 자연적 상실[→ 문제점 2]까지 고려하여 **의료계**에서는 수정란을 생명의 시작이 아니라 그저 세포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 따라서 '의료계'는 일반적으로 수정란을 인간 개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수정란설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다.

문단3 : 배아 상태와 분화 전능성

- 1) 수정란이 착상 장소인 자궁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후 세포 분화에 의해 세포 수가 두 배씩 증가하는 **난할**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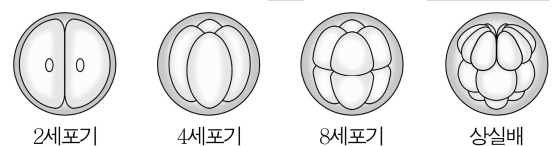
⇒ '난할'이란 단세포인 수정란이 연속적으로 분열하면서 다세포가 되는 활동을 가리킨다.

- 2) 난할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인간의 모든 기관이 온전히 분화된 상태인 **태아**가 되기 전까지의 단계에 있는 것을 **배아**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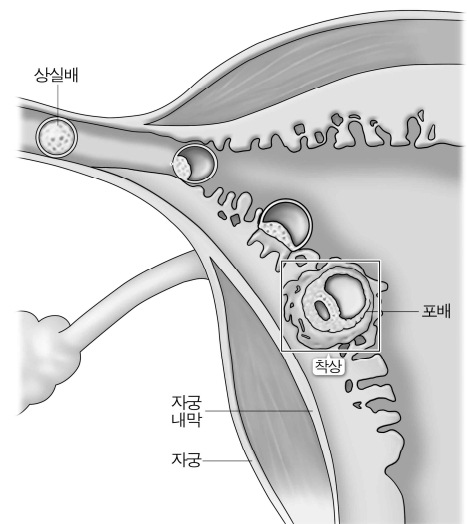
[Rew] 문단1-1)을 떠올리면 되겠다. '수정란' 이후부터 '태아' 이전까지가 전부 배아인 게다.

- 3) 난할에 의해 만들어진 세포를 **할구**라 하는데,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16세포기까지 이어져 수정 후 4일 정도가 지나면 16개의 할구들이 모여 있는 **상실배**가 된다.

⇒ 대략 이런 느낌이겠다.



- 4) 이내 자궁에 도착한 상실배는 내부가 자궁액으로 채워져 물 풍선 모양을 띤 **포배**가 되며, 포배는 결국 수정 후 7일 정도가 지난 즈음에 자궁벽에 묻혀 **착상**된다.



5) 그런데 포배가 되기 전의 할구들[→ 2세포기에서 상실배까지의 할구들]은 분화 전능성을 지닌다. **분화 전능성**이란 배아로부터 분리될 경우 각각 새로운 개체로 분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 배아를 그대로 두면 한 명의 인간이 되지만, 할구들이 분리되면 여러 명의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2세포기에서 두 할구가 분리되어 각각 분화하면 일란성 쌍둥이가 탄생한다.

⇒ 이거 참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1개의 전체[→ 배아]도 1개의 태아로 발전하는데, 전체를 구성하는 1개의 부분[→ 할구]도 1개의 태아로 발전할 수 있다. 내 손톱을 잘랐더니 그 손톱이 나를 닮은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내 손톱은 나와 동일한 개체인가? 내 손톱에서 성장한 한 인간은 나와 동일한 인간인가 아닌가? 나는 내 손톱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가.....,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6) 이러한 특징[→ 포배 이전의 할구들이 지닌 '분화 전능성']은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논쟁[→ '배아 논쟁'이라 부르자.]에서 주요 근거로 활용된다.

[주목] '분화 전능성'이라는 생리학적 사실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문단4 이후 '배아 논쟁'의 중요한 쟁점이 된다.

문단4 :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단어와 마르퀴스의 논쟁

1)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논쟁[→ 배아 논쟁]에서 **싱어**는

[주목] '배아 논쟁'에서의 '싱어'의 관점이 진술된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장과 근거를 주목해야 한다.

2) 인간 중에 속하는 개체인 **개별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엄한 것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인간 중에 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가진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는 자율적인 존재인 인격체로서의 개별자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인식하는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인격체가 되지 못한 배아에 대한 실험은 허용될 수 있다.

⇒ 정리하면 이렇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인간 중에 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격체[→ 자신의 미래를 인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
배아는 자신의 미래를 인식하는 존재가 아니며,
따라서 인격체가 아니다.
↓
배아에 대한 실험은 허용될 수 있다.

[맥락 짚기] 싱어의 이런 논법을 '인격체설'이라고 불러 보자.

3) 반면 **마르퀴스**는 희생자로부터 '가치 있는 미래'를 빼앗기 때문에 살인은 나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배아는 인격체가 아니지만 '가치 있는 미래'를 가지는 개별자[→ 가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배아 실험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목] '배아 논쟁'에서의 '마르퀴스'의 관점이 진술된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장과 근거를 주목해야 한다.

⇒ 마르퀴스는 배아와 관련해서 '가치 있는 미래'라는 개념을 중시한다. 그에 따르면 개별자가 스스로를 미래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지는 딱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개별자가 미래를 갖는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하다.

['가치 있는 미래'를 지닌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
배아는 '인격체'는 아니지만 '가치 있는 미래'를 지닌 존재이다.
↓
배아에 대한 실험은 허용될 수 없다.

[맥락 짚기] '마르퀴스'의 이런 논법을 '미래설'이라고 불러 보자.

문단5 : 배아의 분화 전능성을 근거로 한 단어의 논법 - 비개별자설

1) 그런데 인간 배아의 분화 전능성[→ 문단3-5)]은 싱어에게 인격체 이론[→ 문단4-2)]에 의존하지 않고도 배아 실험의 허용을 주장할 수 있는 길[→ 이 논법의 결론은 '인격체설'과 다르지 않다. 다만 근거는 다르다.]을 열어 주는 것처럼 보인다.

[주목] '배아 논쟁'과 관련된 단어의 또 다른 논법이 소개된다. 편의상 '비개별자설'이라고 불러 보자.

2) 2세포기 배아인 X가 Y와 Z로 분리되어 각각 분화된 결과 쌍둥이가 되었다고 해 보자.

⇒ '분화 전능성' 개념에 비춰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다. 배아는 '분화 전능성'을 지니므로 배아 X를 구성하는 할구 Y와 Z는 각각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할 수 있다.

[Rew] 문단3-5)에서 다른 사례와 다르지 않다. 2세포기[→ 배아 X]에서 두 할구가 분리되어 Y, Z로 각각 분화하면 일란성 쌍둥이가 탄생한다고 했다.

3) 일란성 쌍둥이인 Y와 Z는 비록 모든 유전적 형질이 같지만 서로 다른 개별자인데, ...

⇒ '할구 Y와 Z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할구 Y와 Z는 각각 배아 X와 동일한 개체인가? 싱어에 따르면

4) 이 둘 중 어떤 것도 X와 동일하지는 않다. X와 Y, 혹은 X와 Z가[→ 둘 중 하나가 X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어서 옳지 않으며, 둘 모두 X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Y와 Z가 동일하다는 모순을 낳기 때문이다. 결국 X는 Y와 Z로 분리되는 순간 사라진다고 간주될 수밖에 없다. 싱어는 이렇게 분리되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X는 개별자가 아니며, 개별적인 인간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 싱어에 따르면

가능한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 X는 Y와 Z 중 하나와 동일하다.
• X는 Y와 Z 모두와 동일하다.
• X는 Y와 Z 중 어느 것과도 동일하지 않다.
↓
Y와 Z는 X에서 분리됐다는 점은 같은데,
'X는 Y와 Z 중 하나와만 동일하다.'라는 것은 자의적이다. ⇒ 배제
↓
Y와 Z는 다른 존재인데,
'X가 Y와 동일하다.'라면서 동시에 'X가 Z와도 동일하다.'라는 것은 모순이다. ⇒ 배제
↓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두 가지는 배제되므로,
'X는 Y와 Z 중 어느 것과도 동일하지 않다.'
↓
X는 분리되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다.
↓
결론 : X는 개별자가 아니며, 개별적인 인간도 아니다.

문단6 : 싱어에 대한 오더버그의 반론 - 단계적 종류설

1) 싱어의 논증에 대해 **오더버그**는 X가 Y와 Z로 분리될 가능성이 X의 개별자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주목] 싱어의 '비개별자설'에 대한 오더버그의 반론이다. 편의상 '단계적 종류설'이라고 불러 보자.

⇒ 'X는 분리되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다. → X는 개별자가 아니며, 개별적인 인간도 아니다.'라는 지점에 대한 반론이다. '분리되어 사라질 가능성'과 '개별자 지위'[→ 결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긴데.....

- 2) 싱어의 추론은 X가 ‘인간 배아’라는 종류에 속하면서 하나씩 셀 수 있는 개별자라는 분명한 사실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 배아 X가 분리되어 사라지는 존재이든 말든, 그 자체가 독립적인 개별자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단다.
- 3) 그에 따르면 ‘인간 배아’라는 표현은, ‘인간’, ‘호랑이’와 같이 **실체적 종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아기’, ‘어린이’처럼 **단계적 종류**를 지칭하는 말이다.
[주목] ‘실체적 종류’라는 개념과 ‘단계적 종류’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 ‘실체적 종류’라는 말은 ‘X는 인간에 속한다.’거나 ‘X는 호랑이에 속한다.’라는 진술의 경우처럼, 하나의 상위 개념의 영역[→ 예컨대 포유류 영역]을 두고 수평적 갈래를 나누는 개념이겠다. 반면 ‘단계적 종류’라는 말은 ‘X는 배아에 속한다.’, ‘X는 태아에 속한다.’, ‘X는 아기에 속한다.’, ‘X는 어린이에 속한다.’라는 진술의 경우처럼, 하나의 상위 개념의 영역[→ 예컨대 인간 영역]을 두고 연속적·단계적 갈래를 나누는 개념이겠다.
- 4) 단계적 종류에 속하는 개별자[→ 예컨대 ‘배아 X’]는 실체적 종류에 속하는 개별자[→ 예컨대 ‘인간 X’]와 달리, 자신이 속했던 단계적 종류에 속하지 않게 되는 순간에도[→ 예컨대 ‘배아 X’가 배아에서 벗어나 ‘아기 X’가 된다 하더라도], ... [사라지지 않는다].
[주목] 따질 지점이 많은 문장이니, 쪼개서 이해하자.
⇒ ‘인간 배아’는 ‘단계적 종류에 속하는 개별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아기’가 되고 ‘어린이’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다음 단계의 개별자가 될 뿐이다. 결국 ‘배아 X’와 ‘아기 X’는 연속적으로 동일한 개별자라는 얘기겠다. 하지만
- 5) 둘로 분리되거나 상당한 부분이 제거되는 등의 과정[→ ‘배아 X’가 두 개의 할구로 분리되거나, 혹은 ‘배아 X’가 물리적 손상을 크게 입거나 등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일어나면 사라진다.].
[Rew] 만약에 ‘배아 X’가 문단5-2)의 경우와 같이 Y와 Z로 분화되어 각각 별개의 개별자[→ 일란성 쌍둥이]로 성장하거나, 상당 부분이 제거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배아 X’는 아예 사라지게 된다. 즉 ‘오더버그’ 역시 ‘단계적 종류에 속하는 개별자’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사라질 수 있다고 본 게다.
- # 문단7 : 오더버그의 주장
- 1) 오더버그에 따르면 배아가 쌍둥이로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아와 태아, 신생아가 연속적으로 서로 동일한 개별자이기 때문에[→ 문단6-4)] 배아가 개별적인 인간 존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Rew] ‘싱어’는 문단5-4)에서 배아가 분리되어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오더버그’는 문단6-4)에서 배아가 ‘단계적 종류에 속하는 개별자’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오더버그’에 따르면 배아는 여전히 개별자에 해당한다.
- 2) 한편 배아가 쌍둥이로 분리되는 경우나 할구 중의 대부분이 제거되고 남아 있던 소수의 할구만이 분화되는 경우에는 비록 분리 전 배아가 사라지지만, 이러한 사실이 분리 전 배아의 개별자로서의 동일성과 인간 존재로서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Rew] 물론 ‘오더버그’에 따르면 문단6-5)와 같이 배아가 사라지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분리 전 배아’가 미리 개별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다.
- 3) 이것은 어떤 불치병에 걸려 한 달 이내에 죽을 것이 확실한[→ 한 달 이내에 개별자가 아니게 될] 사람도 죽기 전에 그의 동일성과 권리가 그러한 미래 사실이나 가능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같다.

⇒ 충분히 납득 가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당장 개별자가 아니게 될 이유가 없단 얘기다. 아마 ‘오더버그’는 ‘싱어’에게 대략 이런 식으로 따지려 들 게다. “사람은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개별자가 아닌 셈인가?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사라질 테니 도덕적 지위를 누릴 수 없는 건가?”

문단8 : 오더버그의 결론

- 1) 이러한 이유로 오더버그는 인간 종의 본질을 갖는 개별자로서 수정란부터 생명에의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Rew] 오호라 문단2의 ‘수정란설’의 부활이다.
- 2) 인간 개별자가 [수정란 이후의] 어떤 다른 시점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수정란의 두 할구가 분리된 시점부터 새로운 인간 개별자로서의 생명을 시작한 셈이다.
[주목] 문단2-4), 5)에서 제기되었던 ‘수정란설’의 문제점을 ‘오더버그’가 딱히 해결한 건 아니다. 이 편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뿐이다.
⇒ ‘수정란 X’는 그 다음 단계인 ‘배아 X’가 되기 전에도 하나의 동일한 개별자 X이다. 만약에 ‘수정란 X’가 두 개의 할구로 분리되어 사라지게 되면, 또 다른 두 개의 개별자 Y, Z가 시작된다는, 대략 그런 얘기겠다.

[22~26] 예술 : 다누저의 분석적 해석론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예술 - 음악 미학 - 다누저, 분석적 해석론

「니벨룽의 반지」, 「만종」, 실재성, 동일성, 악보, 소리 울림, 연주, 18세기 연주론, 순수 기악 음악, 해석, 분석적 해석론, 역사적 유형, 전통적 유형, 현대화 유형, 연주 잠재적 방법, 연주 실제적 방법

* 지문 분석

문단1 : 음악의 본질은?

1)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A.오페라 악보를 의미하는가, B.상연되는 오페라를 의미하는가?

⇒ ‘오페라 작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심오한 질문이다. 애초에 A가 없었으면 「니벨룽의 반지」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게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미적 쾌감을 주는 결과물은 B지 A가 아니다. 그런데 또 매 상연마다 B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그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골치가 아픈 질문인데

2) 밀레의 회화 「**만종**」이 오르세 미술관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과 달리, ...

⇒ 1)의 질문이 모든 예술 형식에서 골치가 아픈 건 아닌 모양이다. 「만종」을 이렇게 보여 준다고 오르세 미술관의 「만종」은 더 이상 「만종」이 아니게 될까? 그럴 리 없다. 이렇듯 회화는 특정 장소에 유일하게 존재해서 무엇이 작품인지가 모호하지 않다.



3) 음악 작품의 경우 이처럼 **실재성**과 **동일성**에 관해 답하기 어렵다. 음악은 ‘활동’이지 ‘제작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맥락 짚기] 1)의 질문은 사실 ‘실재성’과 ‘동일성’에 관한 질문이었던 게다. 실재하는 음악 작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매 순간 달라지는 B를 동일한 음악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 「만종」과 달리 「니벨룽의 반지」는 특정한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다[→ 실재성?].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동일성?]. 이는 ‘음악’이 물질성을 갖추지 않은 ‘활동’이기 때문이다.

4) 음악의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A.「**악보**」, 그리고 연주에 의한 B.「**소리 울림**」이다. 음악의 본질과 관련하여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연주에 관한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어 왔다.

⇒ 결국 음악에서 실재하는 것은 A와 B뿐이다. 음악은 A 없이도 존재할 수 없고, B 없이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페라 작품’이 A에 있는지, B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은 애초에 답할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맥락 짚기] 이제부터는 초점을 옮겨 연주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등장할 게다. 물론 여전히 A와 B의 존재도 의식해야겠다.

문단2 : 18세기 연주론

1) 18세기에 「**연주**」라는 개념이 등장했을 때에, 이는 A.악보를 그대로

B.음향화하는 작업을 의미하였다. 18세기 연주론에 따르면 작품에 내재된 힘을 통해 연주자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청중의 정서를 움직이느냐가 연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였다.

⇒ 가장 먼저 등장한 ‘18세기 연주론’은 작품에 내재된 힘에 주목하여 A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이 옳은 연주라고 생각했다.

[주목] ‘종교 나쁜 연주’가 아니라 ‘옳고 그른 연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주목하자. 즉 이들에게 연주는 정답이 있는 문제였다는 얘기다.

2) 즉 훌륭한 연주란 주관에서 벗어나 A.작품이 전달하려는 감정에 빠져들어 이를 청중에게 온전히 전달할 때 이루어진다.

⇒ ‘18세기 연주론’에서 연주자의 주관은 중요하지 않다. 연주자는 오로지 A가 전달하려는 감정[→ 작곡가의 의도]을 충실하게 있는 그대로 청중에게 전달하면 그만이다.

3) 이를 위한 ‘일반적인 연주의 법칙’을 세우려 했던 연주론은

[주목] 그냥 ‘연주의 법칙’이 아니다. ‘일반적인 연주의 법칙’이다. ‘18세기 연주론’은 각 작품마다 옳은 연주의 기준을 세우고자 했다는 얘기다. 이들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18세기 연주론>

- ① 옳은 연주는 A를 충실히 재현하는 것
- ② 연주자의 주관은 중요하지 않음
- ③ 연주자는 A가 전달하려는 감정을 충실히 전달해야 함
∴ ‘일반적인 연주의 법칙’을 세우려 함

4) 1800년을 전후로 경향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가사나 표제와 같은, 의미를 지시하는 요인이 사라진 **순수 기악 음악**이 성행하면서, 청중의 영향[→ ‘18세기 연주론’의 관심]뿐 아니라 작품의 다양한 의미 해석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맥락 짚기] 관점의 전환이다. A에 ‘의미를 지시하는 요인’이 담기지 않는 ‘순수 기악 음악’이 유행하면서 청중에게 전달해야 하는 바도 모호해진 게다. 따라서 특정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는 ‘18세기 연주론’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미 해석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게 되는데

⇒ 물론 더 이상 청중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청중에게 이런 의미만을 전달해야 한다.”에서 벗어나 “청중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로 나아갔다는 얘기겠다.

5) 이에 따라 개별 작품마다 하나의 올바른 연주가 존재한다는 생각[→ ‘18세기 연주론’]은 사라지고 다양한 연주 체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19세기 후반부터는 연주가 곧 **해석**으로 이해되었다.

⇒ ‘18세기 연주론’이 저물면서 “이 작품은 X의 방식으로만 연주해야 해!”라는 생각도 사라졌다. 이제부터는 “이 작품은 X, Y, Z, ...의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주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겠다. 달리 표현하면 “이 작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이 제기된 게다.

문단3 : 분석적 해석론

1) 다누저는 이와 같은 다양한 해석 문화를 설명하는 기준 틀로, 기존의 연주론을 넘어서는 **분석적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맥락 짚기] 오해하지 말자. ‘분석적 해석론’은 다양한 해석 문화 중 하나가 아니다. 개별 음악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연주론’이다.

2) 이는 연주자가 개별 작품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그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연주 방식들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w] 문단2-5)에서 ‘18세기 연주론’이 개별 작품마다 하나의 올바른 연주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가령 어떤 작품에 관하여, 철수가 X를 가장 적합한 연주 방식이라고 생각해도 그게 곧 ‘올바른 연주 방식’이 되는 건 아니다. 영화는

Y가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해석
[→ X, Y] 사이에는 애초에 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다누저에 따르면 해석은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창조적
특성이 있다.

⇒ 연주자는 ‘해석’의 주체로서 더 이상 작곡가가 A를 통해 전달
하려 한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분석적 해석론’에 따르면
‘연주’는 ‘작곡’에 버금갈 정도로 창조적인 작업이다.

[맥락 짚기] ‘분석적 해석론’에 의해 연주에 의한 B 역시 A에 버금
갈 정도로 중요해졌다. ‘18세기 연주론’이 A를 중시했다면 ‘분석
적 해석론’은 B를 A만큼 중요한 개념으로 끌어올린 게다.

4) 다만 다누저는 온전히 연주자의 주관에만 맡기는 해석은 의미가
없고, 작품에 대한 여러 측면의 객관적 분석에 의해 해석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유의미하다고 본다.

[주목] 중요하다. ‘분석적 해석론’이 B에 주목한 것은 맞지만, 그렇
다고 연주자의 주관에만 오롯이 의존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문단4 : 현대 해석 문화의 연주 유형

1) 다누저는 현대 해석 문화의 연주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맥락 짚기] ‘연주 방식’에는 대략 세 가지 유형이 있나 보다.

2) 먼저 ‘역사적 유형’으로, 음악은 만들어진 시기의 어법과 음색으로
연주되어야 한다고 보는 연주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들은 옛 악
기를 만들고 당시의 기법을 따르며 그 시대의 음향으로 연주하려고
노력한다.

⇒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다. 16세기에 작곡된 음악 작품은 16세기
의 방식으로 A.악보를 읽고, 16세기의 악기와 기법으로 B.소리
울림을 재현해야 한다고 본 입장인 게다.

3) 다음은 ‘전통적 유형’으로, 이전에 실제로 연주했었던 연주자들인
해석자들의 주관에서 위대한 작품을 위한 척도를 발견해야 한다고
보는 연주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 한마디로 ‘전통적 유형’은 해당 작품에 대한 적합한 해석으로서,
과거의 해석을 참조하려 했다는 얘기다. 당시의 해석자가 A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연주로 B를 이끌어 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다.

4) 이들은 과거의 음악을 복구하려는 역사적 유형과 달리 악보의 음악
학적 분석에만 치중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그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개별
작품의 연주 전통에 대한 분석, 즉 이전에 연주되었던 것들[→ ‘소리
울림’]에 실려 있는 주관적 감정에 대한 분석을 중시한다.

[맥락 짚기] ‘역사적 유형’이 작곡 시점에 주목했다면 ‘전통적 유형’
은 실제 연주자들의 주관적 감정에 주목한 게다. 전자는 A에만
주목했고 후자는 B에만 주목했다고 오해하지는 말자. ‘분석적 해
석론’의 해석 문화에서는 A와 B 둘 다 중요하다.

5) 세 번째는 ‘현대화 유형’으로, 작품을 현대의 미적 이상에 따라 연주
하려는 연주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베토벤 교향곡을 관현악 편성으
로 변형시켰던 바그너의 시도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옛 작품을 다시
규정하고 작품의 요소들을 현대의 생동감 있는 요소[→ 현대의 미적
이상]로 승화시켜 연주하는 것이다.

⇒ ‘역사적 유형’과 ‘전통적 유형’이 과거의 음악과 해석에 주목했
다면 ‘현대화 유형’은 반대로 과거 음악의 A, B를 오늘날의 기준
에 맞게 다시 해석하고자 했단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겠다.

18세기 연주론
“개별 작품마다 <u>옳은 연주 방식</u> 이 있다.”

VS

분석적 해석론		
“개별 작품마다 적합한 연주 방식이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		
역사적 유형	전통적 유형	현대화 유형
“당시 악기, 기법, 음색으로 연주해야 적합하다.”	“과거 해석자들의 주관을 분석해야 적합하다.”	“오늘날의 미적 이상에 맞춰 다시 해석해야 적합하다.”

문단5 : 적합한 연주 방식을 찾기 위한 방법

1) 한편 다누저는 연주자가 개별 작품에 적합한 연주 방식들을 찾기 위
해 시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맥락 짚기] 문단4에서 ‘연주 방식’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봤다면
문단5에서는 개별 작품에 적용할 ‘적합한 연주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려나 보다.

2) 하나는 ‘연주 잠재적 방법’으로, 이는 악보와 작품 구조, 작곡 기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작품 자체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연주의
가장 중요한 척도를 작품 자체에 두는, 아도르노가 중시하는 방식
이다. 아도르노는 연주 기법보다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비로소 연주가 창조적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연주 잠재적 방법’은 좋은 연주는 작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의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게다. 그래야만 ‘역사적 유형’이 적합할지,
‘전통적 유형’이 적합할지, ‘현대화 유형’이 적합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3) 또 다른 하나는 ‘연주 실제적 방법’으로, 이는 LP나 CD, 연주 기록
등을 통해 실제로 연주되었던 음향을 직접 분석하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음향적 결과를 악보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되었던 당시의 해석적 특성을 밝혀내는 것이다.

⇒ ‘연주 실제적 방법’은 반대로 실제 음향을 직접 분석해야만 ‘역
사적 유형’이 적합할지, ‘전통적 유형’이 적합할지, ‘현대화 유형’
이 적합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겠다.

[참조] 이때 ‘연주 잠재적 방법’은 A만을 중시하고 ‘연주 실제적
방법’은 B만을 중시했다고 오해하지는 말자. 문단4에서도 강조했
지만 ‘분석적 해석론’은 결국 A와 B 둘 다 중요하다고 본다.

문단6 : 분석적 해석론의 의의

1) 다누저의 분석적 해석론은 개별 작품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엄밀한
분석과 미학적 연구를 통해 가장 적절한 연주 방식을 찾아내려는
시도이다.

⇒ 그렇겠다. 개별 작품마다 적합한 연주 방식이 존재하고, 이를
찾아 나설 수는 있겠지만, 단 하나의 옳은 연주 방식이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게 ‘분석적 해석론’의 핵심이다.

2) 이러한 노력은 절대적인 미의 법칙이 사라진 현대의 연주 문화에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의 일환이다.

⇒ 당시 ‘18세기 연주론’이 연주의 옳고 그름을 따진 것은 ‘절대적인
미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예술에는
전달해야 하는 의미는커녕, ‘옳고 그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크세나키스’는 음악에 확률론을 도입하였고, ‘존 케이지’는 음악
에 우연성을 도입하였다. ‘분석적 해석론’은 이렇게 “무엇이 아름
다운 음악인가?”에 대한 정답이 사라진 상황에서 해석의 방향을
고민한 결과인 게다.

[27~29] 고전소설 : 작자 미상, 「방한림전」

* 수록 지문 평가

이 작품은 여성 영웅 소설이다. 여주인공이 어려서부터 남장을 하여 장원 급제 하고 대원수가 되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이야기는 종종 읽은 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주인공이 여자와 결혼한다는 모티프는 고전 소설에서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 작품은 독특, 아니 특별하다. 하지만 ‘동성 간의 결혼’이 아닌, 지기(知己)로서의 의기투합이라는 점에 주목해 읽으면 좋겠다. 그래야 단순한 흥미를 넘어 이 작품이 지닌 문학적 의의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수록 지문 분석

토막1 : 한 번 보고도 방 한림이 남장한 여자임을 알아채고 그와의 혼인을 결심하는 영 소저

차설, (= 고소설에서 화제를 돌려 다른 이야기를 꺼낼 때, 앞서 이야기 하던 내용을 그만둔다는 뜻으로 다음 이야기의 첫머리에 쓰는 말) 영 소저 혜빙이 부친 영 공(公)의 명(命)으로 방 한림[→ 방관주의 벼슬 이름]을 보니, 총명하고 신이함이 범인(凡人, 평범한 사람)이 아닌지라. 영 소저 본디 말소리를 듣고도 선악을 분별하니[→ 영 소저의 사람 보는 눈이 대단히 훌륭하다는 거다.], 어찌 그 얼굴을 대하여 모르리오? 방 한림이 비록 준수하나, 오히려 영 소저 일생 닦아 온 거울에 그 본모습이 비치지 않으리오? [→ 맑은 거울 같은 영 소저에게는 방 한림의 참모습이 다 비쳐서 훤히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다.] 한림의 말소리 낭랑하나 가늘고 조용하며 나직하니, 소저 마음에 괴이히 여겨 [→ 남자 목소리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다.] 잠깐 보고는 즉시 깨달아 생각하기를 오래 하더니, 일어나 내당(= 여인들이 거처하는 방)에 들어가 고요히 헤아리되,

‘자고로 외모 고운 남자도 있다 하나 여자와 너무 흡사하니, 어찌 이런 남자 있으리오? 곱고 깨끗하여 이슬 맞은 꽃송이같이[→ 숨길 수 없는, 방 한림의 여성스러움을 의미한다.] 온갖 자태 아름다우니, 반드시 어려서 부질없는 남복(男服)을 하였다가, 부모 일찍 돌아가시니 권하여 여도(女道, 여자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리)를 가르칠 이가 없어, 이에 끝내 억누르기 어려워 지금에 이르렀을 것이니[→ 방 한림이 남장 여자로 살아가게 된 내력을 나름대로 추측하고 있다.] 진실로 우스운 일이나, [→ 황당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내 보건대 한림의 얼굴이 깨끗하고 행동거지 단정하고 엄숙하여 일세 기남자(奇男子, 재주와 슬기가 남달리 뛰어난 남자)라. 이런 영웅 같은 여자를 만나 일생 지기(知己) 되어 부부의 의와 형제의 정을 맺어 일생을 마침이 나의 원(願)이라. 내 본디 남자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제어를 받으며 눈썹을 그려 사랑을 구함을 괴로이 여겨 부부의 연을 원치 않더니[→ 남편의 통제 아래서 남편의 사랑을 구하며 사는 보편적인 여자의 삶을 원하지 않았다는 내심을 드러내고 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있으나 어찌 우연타 하리오? 반드시 하늘의 뜻이 있음이라.[→ 우연히 방 한림과 인연이 생겼지만, 이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늘이 자신의 뜻을 알아 준 결과라고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수건과 빗을 관리하며 사는 것[→ 한 남자의 아내로 사는 삶을 의미한다.]은 구차한 일[→ 전통적인 여성으로서의 삶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내심을 드러내고 있다.]이니, 그 보다는 낫지 않으리오?’

⇒ 방 한림이 남자 노릇을 하게 된 내력을 짐작하고 황당해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그런 여자를 만나 인연을 맺기를 원해 온 마음을 드러내면서 반가움을 표하고 있다.

옥결(= 옥들의 결이 깨끗하다는 데서 흔히 깨끗한 마음씨를 이르는 말) 같은 맑고 깨끗한 마음이 이렇듯 뜻을 정하매 세상사 더욱 뜬구름 같고 주관과 의지도 굳건하니 기이하고 보기 드문 일이다. 옛날에는

유비, 관우, 장비의 결의와 유백아, 종자기의 지음(知音,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일컬었으나 오늘날에는 영혜빙과 방관주 두 사람이다.

⇒ 영 소저와 방 한림 두 여성 사이의 우정이 유명한 영웅들의 사귀이나 고사 속 인물들의 우정에 못지않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월(日月)이 빨리 흘러[→시간이 빨리 흘러가] 혼삿날이 임하니, 양가(兩家)에서 혼구(= 혼인 때에 쓰는 여러 가지 기구)를 성대하게 준비하여 신랑이 예물을 보내고 신부를 맞이할새, 방 한림이 옥 같은 용모와 빼어난 풍채로 혼례복을 차려입고 행렬을 거느려 신부의 집으로 행하니 향기로운 바람이 길일(吉日, 상서로운 날)을 축하하거늘, 금 안장을 엮은 신랑의 백마를 무리가 웅위하여 나아가니[→ 신랑의 화려하고 성대한 행차를 상상할 수 있겠다.]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탄복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신랑이라 하더라.

(중략)

토막2 : 결혼 첫날밤에 방 한림의 고백을 유도하는 영 소저

이윽고 신부 아름답게 치장한 옷을 가다듬고 채색한 가마에 올라 칠보(= 일곱 가지 보배) 장식한 주렴을 드리우매, 한림이 순금 자물쇠를 들어 가마를 잠그고 행렬을 이끌어 부중(府中, 높은 벼슬아치의 집안)에 이르러, 맞절을 마치고 화촉(華燭, 혼례에 쓰이는, 빛깔을 들인 밀초) 아래에 나아가 아름다운 잔에 술을 나누어 마시고 칠보로 꾸민 부채를 반개(半開)하여 신부의 얼굴을 드러내매, 신랑이 눈을 들어 신부를 보니 어여쁜 광채가 네 벽에 밝게 비치고 풍만하며 어여쁜 기질이 새로운지라.

석양에 신방(新房)으로 나아가자 한림은 수려한 눈썹에 묵묵한 근심이 잠겼고, [→ 결혼을 하긴 했지만, 첫날밤을 어떻게 치를지가 걱정인 거다. 남장 여자인 게 들통 날 게 뻘하니 말이다.] 영 소저는 그가 여자임을 속으로 기뻐하더라.

⇒ 남편의 통제 아래 있는 ‘아내’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한 영 소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한다면 ‘영웅 같은 여자’와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다행스럽고 기쁘게 여기는 거다. 첫날밤을 앞두고 두 인물의 심리적 반응이 대조를 이루며, 긴장되고 흥미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신랑 신부 양인(兩人)이 한참을 서로 마주하고 묵묵히 있다가 한림이 손을 모아 감사를 표하며 왈,

“학생[→ 선비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칭하는 말]이 천박한 필부(匹夫, 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내)이거늘, 장인의 알아봐 주심을 입사와 [→ 영 소저의 아버지인 영 공이 방 한림을 높게 평가하여 사위로 삼으려고 여러 번 구혼했던 일을 말하는 것이다.] 소저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다행함이니, 서로 지기 될까 바라나이다.”

영 소저 용모를 바르게 하고 옷깃을 가다듬고 왈, “소첩이 규방 여자의 좁은 견문과 쓸모없는 자질로 성명(性命, 사람의 마음과 하늘의 뜻)에 의지하와 외람되어 군자와 부부의 도를 이뤘으나 어찌 지기 되기를 바라리잇고마는 [→ 앞에서는 방 한림과 지기 되길 원한다 해놓고, 이렇게 겉으로는 짐짓 아닌 척,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거다.], 스스로 돌아보사 여자의 식견을 어둡게 하지 마소서. 첩이 군자의 심사를 누설치 않으리니 너무 속이지 마소서.”

⇒ ‘당신이 여자인 거 이미 다 아니까, 더 이상 애써 아닌 척 하지 말라’는 뜻인 거다.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며 노련(?)하게 고백을 유도하고 있는 거다. 지기 되기를 거절하고 진실을 고백하라고 유도했다는 점에 주목하면, 감추는 게 없어야 진정한 지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을 은근히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림이 의아하고 스스로 부끄러워[→ 영 소저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의아해지는 한편, 자신의 정체가 뻔뻔하지 못한 형편인

만큼 일단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다.] 홀연 무슨 말을 할지 몰라 하다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다가] 웃으며 왈,
 “부인의 말씀이 뜻이 있나니, 주인과 객이 만난 지 얼마 지나지 못하여 숙인다고 책망하니, 그 까닭 어디 있나뇨? 자세히 풀어 말씀하소서.”

⇒ 영 소저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정체를 밝힐 수도 없어 말뜻을 전혀 못 알아듣겠다는 듯이 되물으며 위기를 벗어나려는 거다.

소저 꽃 같은 얼굴을 낮추어[→ 얼굴을 숙여] 정색하고 답이 없거늘, 한림이 이미 영 소저가 자기의 정체를 알아봄을 깨닫고, 사람을 알아보는 고명(高明, 식견이 높고 사물에 밝음)함을 경탄하나 너무 맑고 바른 것에 마음이 상하여 다시 입을 열지 않고 그날 밤을 보내니라.

⇒ 영 소저가 첫날밤 대화에서 ‘숙이지 마소서’라는 말로, 방 한림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혹 치고 들어오니, 방 한림으로서는 당황스럽고 은근히 기분이 상하는 거다. 그동안 내내 온 세상을 다 숙여 왔는데, 이렇게 자신을 손바닥처럼 훤히 내려다보는 상대가 편하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이다.

* 참고 자료

작품 전체 줄거리

- 1) 중국 명나라 정덕(正德, 1506-1521) 연간, 북경 유하촌의 방관주는 부모가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나 늘그막에 낳은 딸로, 나면서부터 해와 달의 기운을 받아 몸이 빼어났으며 기이한 징조가 많았다.
- 2) 관주가 서너 살이 되자 용모가 시원스럽고 기상이 빼어나 규방 여자의 행동이 없으며, 글을 배우면 문일지십(聞一知十)이라 부모가 사랑하여 아들 없는 것을 한으로 여기지 않는다.
- 3) 부모가 관주의 소원대로 남자 옷을 지어 입히고 아녀자의 일은 가르치지 않은 채 시 짓기와 글쓰기를 가르치니, 관주는 『시경』과 『서경』 등 온갖 책을 읽어 모르는 게 없고, 이백과 두보를 무시할 정도가 된다. 부모는 친척들에게도 관주를 아들이라고 말한다.
- 4) 관주가 8살 때 부모가 죽자, 부지런히 책을 읽으며 여도에 뜻이 없어 남자로 처신하며 하인들을 엄히 다스린다. 남자 노릇을 말리는 유모에게 관주는 화를 내며 자신의 일을 비밀에 부치도록 다짐해 둔다.
- 5) 어느 봄날 관주는 집안일을 유모와 하인들에게 맡기고 동자들 몇 명과 전국으로 주유를 떠나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고, 12살이 되자 여자의 부드러운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 6) 관주가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에 제수된 뒤로 구혼자가 몰려들자, 속으로 민망하게 여기며 거절하지만 남자로 행세하고 있는 터에 처자를 두지 않으면 주변의 의심을 살까 봐 고민이 크다.
- 7) 한림은 병부상서 겸 태학사 서평후 영의정의 강관에 못 이겨 그의 막내딸 혜빙과 혼인한다. 혜빙은 남자의 규제를 받으며 사는 여자의 처지를 싫어하여 결혼하느니 차라리 인륜을 끊는 게 낫다고 여기던 터에, 처음부터 한림이 남장한 여자임을 알아차리고 ‘영웅 같은 여자를 만나 지기(知己)가 되어 부부의 의리와 형제의 정을 맺어 일생을 마침이 한평생 소원’이라 생각하며 한림이 여자인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 8) 한림은 영 소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비밀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고, 영 소저는 죽을 때까지 한림을 저버리지 않겠다며 서로 지기가 되기로 다짐한다.
- 9) 조정에 들어간 한림은 어린 나이지만 조정 대신들로부터 두려움과 스승 같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벼슬은 이부시랑 겸 태학사에 오른다.
- 10) 형주가 어지러워지자, 시랑은 안찰사로 형주에 부임하여 고을을 잘 다스리는데, 어느 늦가을 산으로 구경을 갔다 천둥치는 가운데 큰 별이 떨어진 곳에서 남자 아이를 얻어 낙성(落星)이라 이름 짓고 집에 데려와 키우게 된다.

- 11) 이듬해 봄, 황제가 안찰사를 병부상서 추밀사로 벼슬을 올려 부름에 따라 집에 돌아온 상서는 영 소저와 회포를 풀고 낙성을 자신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처럼 여겨 잘 기른다. 낙성이 9살이 되자, 상서는 추밀사 김희의 딸과 낙성을 정혼시킨다.
- 12) 방 상서와 영 부인의 내막을 다 아는 유모가 상서와 부인에게 ‘낭군과 부인이 인륜을 끊었다, 두 소저의 청춘이 아깝다.’고 하자 부인은 눈썹을 찡그리며 못마땅해 하고, 상서는 눈을 부릅뜨고 꾸짖으며 ‘괴이한 소문’이 돌면 유모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위협한다.
- 13) 황제가 간신을 가까이하면서 환관이 국정을 농단하여 도읍이 위태롭고 사방이 요란해진 틈에 북방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신하들 중 유일하게 상서가 출정을 자원한다.
- 14) 황제로부터 대원수 정북장군을 제수 받은 상서는 오랑캐 땅으로 진격하여, 첫 번째 교전에서 오랑캐 왕을 크게 무찌르고, 이어서 자신을 암살하려던 오랑캐 장수를 죽인다, 오랑캐 왕과 진을 치는 재주를 겨루며 일전을 벌인 끝에 오랑캐 왕을 사로잡는다. 원수가 오랑캐 왕을 풀어 주자, 왕이 감격해 원수에게 항복 문서를 올린다.
- 15) 황제는 승리한 원수를 우승상 강릉후에 임명하며, 원수의 부모들도 추존한다. 승상이 집으로 돌아오니 부인과 장인, 온 집안이 기뻐한다.
- 16) 승상은 낙성이 12살이 되자 김 추밀의 딸과 결혼시킨다. 낙성은 이듬해 장원 급제해 도어사에 임명되고, 물망이 높아지면서 병부상서에 이르고 황제의 총애는 날로 커진다.
- 17) 어느 날 승상을 찾아온 도사는 승상의 관상을 보며, 음양을 바뀔 황제와 천하를 속였으니 그 벌로 나이 마흔이 되지 않아 죽을 것이라 예언하고 사라진다. 승상 또한 자신에게 닥친 ‘천벌’을 예감하며 홀로 남게 될 영 부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다.
- 18) 이듬해 봄, 큰 잔치를 열어 사흘 동안 즐기던 승상이 갑자기 슬픈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자 손님들은 저마다 승상을 위로하고, 영 부인과 아들 부부 또한 깊이 근심한다.
- 19) 승상은 먹고 마시는 데 흥미를 잃고 점점 수척해져 자리에서 눕게 되고 병세가 날로 위중해진다. 승상이 자신을 찾아 온 황제 앞에서 ‘여자로서 황제를 속인 죽을 죄’를 고백하자, 황제는 도리어 승상을 기특하다 칭찬하며 위로하고 승상의 벼슬도 그대로 둔다.
- 20) 서평후는 이날에야 비로소 사위의 정체를 알고 크게 놀라고, 딸의 행실이 ‘인정(人情) 밖’이라며 딸을 나무란다.
- 21) 승상은 결국 39살에 죽고, 이를 슬퍼하던 부인도 자주 기절하다가 결국 남편 따라 죽고 만다. 황제는 승상의 장례를 국례에 따르게 하고 장례에 쓰이는 각종 도구를 다 남자의 것으로 하라고 명한다. 승상은 영 부인과 삶과 죽음을 함께 한 지기로 같은 무덤에 안장된다.
- 22) 첫 기일에 낙성의 꿈에 나타난 이들 부부는 ‘우리는 본래 문곡성(文曲星)과 상아성(姮娥星)이었는데, 옛날처럼 즐겁게 지내고 있으니 너희는 서러워 말고 부디 집안의 명예를 빛내고 만수무강하라’는 말을 남긴다.
- 23) 낙성은 부모의 삼년상을 치른 뒤에 조정에 나아가 중성을 다하는데, 벼슬이 참지정사 태종태부에 이르고, 이 씨와 재취하여 김 씨에게서 7남 3녀, 이 씨에게서 1남 2녀를 둔다. 가정(嘉靖) 황제 때에는 우승상 진양후, 뒤에 위국공에 봉해져 부귀가赫赫했으며 부부 세 사람이 다 70여 세에 세상을 떠난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기술 - 컴퓨터 공학 - 빅 데이터 처리, 스톰

배치 처리, 실시간 처리, 빅 데이터, 스톰, 피드, 스파우트, 튜플, 볼트, A사 필터링 볼트, B사 필터링 볼트, 긍정 처리 볼트, 부정 처리 볼트, 스트림, 토폴로지

* 지문 분석

문단1 : 빅 데이터의 활용 방식

1)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치 처리’와 ‘실시간 처리’가 있다.

⇒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생성된다는 데에 주목해야겠다. 매 순간 신용 카드를 이용한 거래 내역이 얼마나 빨리 생성될지 한번 상상해 보자. 눈앞이 아득해진다.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데

2) **배치 처리**는 월간 매출을 구하는 것처럼 데이터들을 일정 기간 쌓아 놓았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고, ...

⇒ 월간 매출을 구하려면 일단 그 달의 매출 데이터가 전부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결국 ‘배치 처리’는 지속적으로 생성된다는 1)의 특성과는 딱히 관련이 없는 방식인 게다.

3) **실시간 처리**는 메일 중 광고성 메일을 걸러 내는 것이나 신용 카드 거래 중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것처럼 결과를 즉각 도출하는 방식이다.

⇒ ‘실시간 처리’는 ‘배치 처리’와 달리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하나의 데이터가 생성되면 즉각 그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얘기다. 아무래도 이쪽이 지속적으로 생성된다는 1)의 특성을 더 잘 살리는 방식처럼 보인다.

4) 실시간으로 방대한 데이터들이 생성되어 쌓이는 **빅 데이터**는 그 생성 규모로 인해

⇒ 데이터 중에서도 ‘빅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표현 그대로 생성 규모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5) 직접적인 배치 처리가 불가능해서 먼저 실시간 처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맥락 짚기] 일단 ‘실시간 처리’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 원리와 과정에 집중해야겠다.

[주목] 빅 데이터가 아예 ‘배치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지는 말자. 워낙 그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쌓아 놓았다가 처리하는 방식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지, 아예 사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문단2 : 스톰

1) 빅 데이터에서 실시간 처리는 데이터의 생성 속도보다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 맞다. ‘처리 속도’가 ‘생성 속도’보다 느리면 데이터는 영원히 쌓이기만 할 게다. 따라서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게 빅 데이터의 처리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텐데

2) 이를 위해 물 흐르듯 데이터들을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연산 대신에 간단한 연산들을 늘어놓아 여러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스톰**이 있다.

⇒ 보아하니 ‘처리 속도’에는 ‘연산의 개수’보다 ‘연산의 복잡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나 보다. 그래서 ‘스톰’에서는 복잡한 연산 하나를 활용하는 대신 간단한 연산 여러 개를 활용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극대화했다는 얘기가.

3) SNS 게시 글인 **피드**들을 토대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분석해야 하는 상황에 스톰을 활용할 수 있다.

[맥락 짚기] ‘스톰’의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 주려나 보다. 피드 역시 실시간으로 방대한 양이 누적되는 만큼 ‘빅 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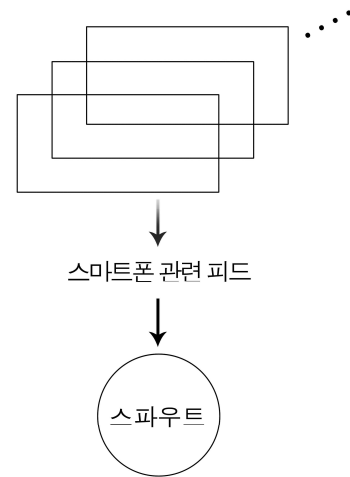
문단3 : 스파우트

1) 스마트폰 제조사들 중 A사와 B사의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분석해야 할 때, 각 피드에는 하나의 제조사에 대한 반응만 있다고 가정하자.

⇒ SNS 게시 글을 통해 A사의 스마트폰, 혹은 B사의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려는 게다.

2) 스톰은 피드들 중에서 스마트폰 관련 피드만을 스파우트에 실시간 공급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 지금부터는 이런 상황을 떠올려 가면서 읽어야겠다. 실시간 생성되는 피드들 중에서 스마트폰과 관련이 있는 피드들은 ‘스파우트’에 공급되지만, 애초에 스마트폰과 관련이 없는 피드들은 ‘스파우트’에 공급되지 않는다.



3) **스파우트**는 데이터[→ 스마트폰 관련 피드]에서 필요한 항목들만 추려서 정해져 있는 형태로 ‘튜플’을 출력하는 기능을 한다.

⇒ ‘스파우트’에 피드들이 공급되는 과정도 선택적이었지만, ‘스파우트’가 ‘튜플’을 출력하는 과정 역시 선택적인 게다. 이렇게 필요한 항목들만 추려서 선택적으로 처리하는 것 역시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4) **튜플**은 {항목값1, 항목값2, ...}와 같은 형태를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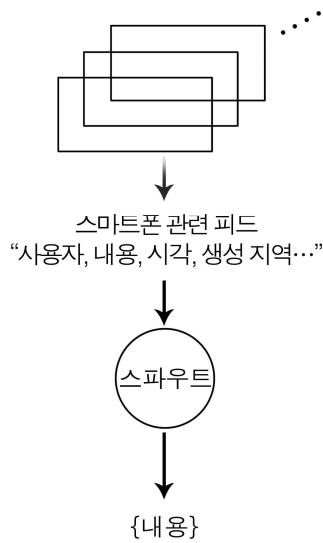
[참조] ‘튜플’은 이런 형태의 값을 가리킨다. 설명을 조금만 더 보태자면, 컴퓨터 공학에서 ‘튜플’은 유한하면서도 일정한 순서를 갖는 데이터의 열거이다. 따라서 {1, 2, 3}과 {3, 2, 1}은 별개의 튜플에 해당한다.

5) 사용자, 내용, 시각, 생성 지역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피드에서 필요한 항목들로만 튜플을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피드의 내용에서 반응을 확인해야 하므로 {내용}과 같은 형태를 튜플로 삼을 수 있다.

⇒ ‘스파우트’가 추리는 필요한 항목들은 ‘실시간 처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다. 여기서는 ‘사용자, 내용, 시각, 생성 지역 등의 항목’ 중에서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만을 추리는 게다.

6) 스파우트는 이 형태로 생성한 튜플[→ {내용}]을 첫 번째 **볼트**들 모두에 각각 전달한다.

⇒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볼트’가 뭐하는 놈인지는 아무래도 다음 문단에서 확인해야겠다.



문단4 : 볼트

- 1) **볼트**는 간단한 연산이나 함수를 거쳐, 다음 경로의 볼트들로 튜플을 출력하거나

[주목] '볼트'의 첫 번째 역할이다. 문단2-2)에서 언급한 '스툼'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법의 주체가 바로 '볼트'였던 게다!

⇒ '볼트'는 '스파우트'로부터 '튜플'을 입력받고 계산을 거쳐 다시 '튜플'로 출력하는 구조인가 보다.

- 2) 산출한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 '볼트'의 두 번째 역할이다. '스툼'의 첫 단계가 '스파우트'였다면 마지막 경로의 볼트들이 '스툼'의 마지막 단계를 책임지나 보다.

- 3) 스파우트로부터 튜플을 전달받는 첫 번째 볼트들은 **A사 필터링 볼트**와 **B사 필터링 볼트**이다. 이 볼트들은 각각 단어 'A사' 또는 'B사'가 포함된 튜플만 두 번째 볼트들로 출력하는데, ...

⇒ 문단3의 '스파우트'가 실시간으로 '튜플'들을 출력하면 이는 두 개의 '필터링 볼트'에 전달된다. 'A사 필터링 볼트'는 내용에 'A사'가 포함된 튜플만을 출력하고, 'B사 필터링 볼트'는 내용에 'B사'가 포함된 튜플만을 출력한다.

[참조] 이럴 거면 그냥 하나의 'A·B사 필터링 볼트'를 배치하고 'A사' 혹은 'B사'가 언급된 튜플들만 출력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건 간단한 연산이 아니다. 복잡한 연산이다. 하나의 복잡한 연산보다 두 개의 간단한 연산이 낫다.

- 4) 출력되지 않은 나머지는 삭제된다.

[주목] 문단3-6)에 따르면 '스파우트'는 모든 첫 번째 볼트들에 튜플을 전달한다. 따라서 'A사 필터링 볼트'는 'B사'가 포함된 내용의 튜플 역시 입력받는다. 다만 해당 튜플을 출력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A사', 'B사'가 모두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아예 삭제된다는 얘기다. 이 역시 굳이 처리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튜플들을 삭제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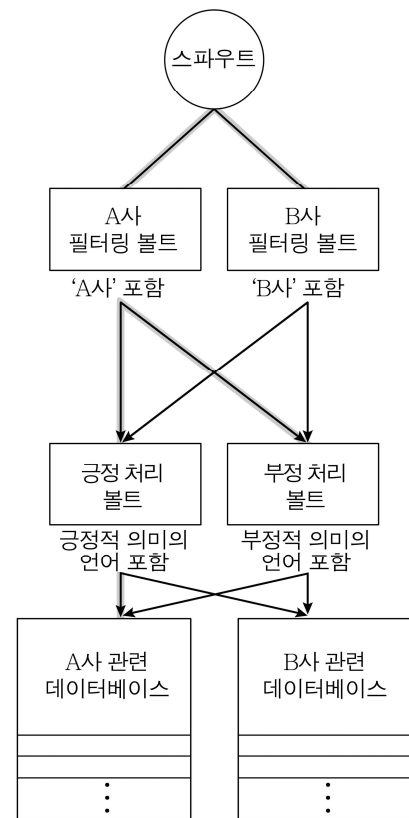
- 5) 이어 두 번째 볼트는 **긍정 처리 볼트**와 **부정 처리 볼트**이다. 긍정 처리 볼트는 '좋아요', '추천함'과 같은 긍정적 의미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개수를 세고[→ 간단한 연산]

⇒ '긍정 처리 볼트'의 첫 번째 기능이다.

- 6) 해당 튜플이 어느 경로[→ 'A사 필터링 볼트' 혹은 'B사 필터링 볼트']에서 온 것인지를 확인하여 A사 혹은 B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개수만큼 더하는 기록을 한다.

⇒ '긍정 처리 볼트'의 두 번째 기능이다. 두 번째 볼트가 '스툼'의 마지막 단계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볼트가 1), 2)에서 언급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는 게다.

[팩트 짚기] 한번만 직접 떠올려 보자. 어떤 피드에 'A사에 대한 긍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경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피드 내용의 '긍정적 의미의 단어의 개수'가 'A사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더해질 게다.



- 7) **부정 처리 볼트**는 '싫어요', '비추천' 등의 단어를 세어 마찬가지로의 작업을 한다.

⇒ 마찬가지로 '부정 처리 볼트'도 부정적 의미의 단어가 포함된 개수를 세고, A사 혹은 B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개수만큼 더하는 기록을 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게다.

- 8) 각 볼트들은 각기 지정된 작업을 마친 후 스톼에 **처리 완료 신호**를 보내고 다음 튜플을 기다린다.

⇒ 맞다. 지정된 작업을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문단1에서 설명한 대로 데이터들은 지속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이다.

- 9) 이렇게 제품별로 소비자 반응과 관련한 단어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는지를 매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두면, **매시간 추이**는 물론

⇒ 당연히 그렇겠다.

- 10)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배치 처리를 통해 **일간 추이**나 **월간 추이**도 분석할 수 있다.

[Rew] 문단1-5)에서도 짚었지만 빅 데이터에 대한 '배치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먼저 '실시간 처리'로 'A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와 'B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정돈되지만 하면 이를 토대로 하는 '배치 처리' 역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문단5 : 토폴로지

- 1) 스톼에서는 이와 같이 각기 다른 볼트들이 서로 연결되어 경로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튜플의 흐름인 **스트림**이 형성된다. 이처럼 스파우트를 시작으로 볼트들이 스트림으로 연결된 구조를 **토폴로지**라고 한다.

⇒ 문단4-6)에서 정리한 전체 구조를 '토폴로지'라 하고, '튜플'들의 흐름을 '스트림'이라 하나 보다. 구분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만 이겠다.

- 2)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토폴로지는 여러 형태가 가능하며, 불필요한 튜플들을 가급적 이른 단계에 제거하는 토폴로지일수록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다**.

⇒ 그렇겠다. 어디까지나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리할 필요가 없는 튜플들을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할 게다. 예를 들어 문단4의 '토폴로지'에서도 필터링 볼트를 두지 않았으면, 'A사' 혹은 'B사'가 포함되지 않은 튜플들까지도 처리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졌을 게다.

* 수록 지문 평가

이 소설은 남아 선호 사상과 생명 존중의 문제를 연결 지어서 다루고 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뚜렷이 다른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일종의 액자식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결부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지문의 전반부에서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남아 선호 사상과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친구 며느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후반부에서는 손주의 성별에 관계없이 이른바 ‘생명 존중’ 사상을 실천하였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 둘 사이의 연결점을 잘 생각하며 읽어 두면 좋겠다.

* 수록 지문 분석

“그러니까 너도 딸이면 더 낳을 작정이었구나? 아들딸 가리지 않고 하나 이상 절대로 안 낳는다고 큰소리 땡땡 치더니.” “마냥 낳겠다는 것보다 더 지독한 각오지, 아들 낳을 때까지는 낳아야겠다고 생각했으니.” [→ 이 작품은 1985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당시는 인구수 폭증에 대한 우려로 ‘둘도 많다’라는 표어로 대표되는 산아 제한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인데, 뒤에 나올 ‘친구 며느리’와 같이 이를 받아들이지 성별에 무관하게 두 명의 자녀만 낳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막상 딸을 낳을 경우 더 낳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았다. 이어지는 대화는 그런 풍조를 여실히 보여 준다.] “어쩔 남편이 외아들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 당시에는 가부장적 의식에 따라, 외아들일 경우에는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아들을 갖고 싶다는 건 본능 같은 거지, 누가 시켜서 되는 거 아니잖아.” [→ 남아 선호 사상은 원래 문화 속에서 생겨난 것인데, 그 믿음이 오래되다 보니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본능이자 남편에 대한 의무 아닙니까. [→ 아들을 낳는 것을 아내의 의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역시 가부장제에 의한 남아 선호 사상의 일면이다. 아들이 없다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하다는 당대의 이러한 통념은, 딸만 낳은 ‘친구 며느리’가 죄인처럼 위축되어 있는 까닭이기도 하겠다.] 아들이 이렇게 좋은 건 줄은 나도 애아버지가 되기 전엔 미처 몰랐댔죠. 최상의 기쁨이에요. 아들이 소중한 나머지 내 몸 소중한 걸 알겠더라니까요. 습관적으로 차를 마구 몰다가도 아서라, 우리 아들을 위해 오래 살아야지, 이러면서 살살 몰면서 느끼는 벅찬 기쁨, 아내는 남편에게 그 정도의 기쁨은 선사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해 두게. 징그럽네 징그러워, 젊은 사람이.” [→ 전후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진지하게 말리는 반응이라기보다는, 말리는 척 은근히 맞장구를 쳐주는 분위기의 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왜 샘나나?” [→ 자신이 아들을 낳았음을 자랑스럽고 생각하고, 그 자랑을 말리는 사람에게 아들 있는 자신을 샘낸다는 반응이다. 아들에 대한 선호를 비판적 사유 없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지적을 부러움이나 열등감의 표출 정도로 이해하는 거다.]

⇒ 친구 며느리 옆 침대에 누운 산모는 아들을 낳았다. 옆 침대 산모를 문병 온 일행들이 축하한다며 이런 이야기를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장면이다. 이들은 바로 옆 자리에 딸을 낳은 산모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때는 아들 선호 사상이 남아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들을 못 낳으면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산모가 기가 죽고 슬퍼했다. 그런 옆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아들 탄생을 요란하게 축하하고 있는 모습을 무신경하고 무례한 것으로 그려 내면서, 그러한 행동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인식에 대해서도 보여 주고 있는 대목이다.

새로 아버지가 된 남자와 그의 친구가 여자들끼리처럼 서로 옆구리

를 간지럽히며 킁킁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정작 문병 온 산모도 있고 팔려 있던 그들의 화제에 구역질 같은 혐오감을 느꼈다. 친구의 며느리는 모포를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누워 있었다.[→ 몹시 우울하고 위축된 상태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늘 당당하고 쾌활한 태도에 어울리게 늘씬하고 볼륨 있는 그녀의 몸매를 알고 있는 나는 반쯤 침대 속으로 잤아든 것처럼 알뜰하게 위축된 모습[→ 원래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인물인데, 딸을 낳은 후 마치 죄인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에 가슴이 찡한 연민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애 많이 쓰십니다. 산모는 어떻습니까? 미역국이나 잘 먹지요.”

나는 겨우 이렇게 뒤늦은 인사치레를 사돈[→ 친구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 ‘내 친구’의 사돈]한테 했다. 내 친구는 아직도 저쪽 이야기에 깊이 빠져 며느리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있었다. 친구의 표정이 폭풍 전야처럼 암울하고 험악했다.[→ 딸만 둘 낳은 며느리에게 잔뜩 화가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산모를 보러 오기까지 가까스로 억제했던 분통이 그들의 철딱서니 없는 화제 때문에 다시 지글지글 끓어오르고 있음이 분명했다.[→ 간신히 화를 참고 있는 ‘내 친구’였는데, 옆자리 문병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화가 끓어오르고 있는 모양이다.] 그들이 다시 한번 왁자지껄 목청 높고 과장된 축하 인사를 남기고 한꺼번에 병실을 나갔다. 남자가 네 명, 여자가 세 명 도합 일곱 명의 축하객은 서로 나이뿐 아니라 풍기는 것도 엇비슷해서 동창이나 직장 동료쯤 되는 관계로 보였다.

“뭐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나는 그동안 안쓰럽도록 몸 둘 바를 모르고 찢찢매고 있는 사돈 마님[→ 자신의 딸이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사돈인 ‘내 친구’에게 부끄럽고 죄스러워 어쩔 줄 모르고 있다.]한테 위로 겸 이렇게 그쪽 흉을 봤다. 한방 산모가 두 번째 딸을 낳고 누워 있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첫아들 축하를 너무도 거침없이 대대적으로 하는 그들의 몰인정과 잔혹성[→ 옆 침대 손님들의 무신경함과 무례함]을 나로서는 그렇게 배악에 표현할 길이 없었다.

“무식하긴요. 다 이 대학 교수들일 텐데요. 아기 아빠가 이 대학 공대 교수라니까요. 온종일 껴안네기[→ 겨뽀네기. 서로 번갈아 하는 것]로 저렇게들 드나든다니까요. 재나 나나 못 할 노릇이죠 뭐.”

사돈 마님이 쓰고 누운 딸한테 눈물이 그러한 눈길을 보내며 한숨처럼 말했다.

⇒ 문병 온 손님들은 대학 교수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지식인들인데도 남아 선호 사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옆 침대에 누운 다른 산모의 처지에 대해 배려해 주지도 않는다. 지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남아 선호 사상이 이 시대에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나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천하에 무식한 것들 같으니라구.”

사돈 마님은 극구 부정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입속으로 그들의 무식을 강조했다. 전엔 그렇게 생각한 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선 웬지 무식함과 잔혹함이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동일한 것으로 여겨졌다.[→ 원래 ‘무식함’과 ‘잔혹함’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런데 문병 손님들의 무례하고 몰인정한 행동을 보고 ‘나’는 그들의 잔혹함이 무식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때의 무식함은 배움과 지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배려해 주지 않는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산모의 어쩔줄지 모르겠게 흔들리는 게 모포 밖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그녀의 자존심이 죽자거나 억제하고 있으면서, 미미하지만 처절한 흐느낌도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친구의 눈길이 잠깐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스치고 나서 사돈 마님을 똑바로 봤다. 험악하다 못해 살기가 등등한 눈빛이었다.[→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지레 겁을 내며

원망스럽게 옆의 침대를 건너다보았다. 앞으로 일어날 일[→ 며느리가 딸을 낳은 것을 두고 ‘내 친구’가 한바탕 크게 화를 낼 것으로 보이는 게다.]의 책임의 반 이상은 그쪽에 있다 싶었다. 그러나 방금 축하객을 전송하고 난 그쪽 산모는 나른하게 포만한 표정으로 머리맡의 가습기의 방향을 조절하고 나서 창 쪽으로 모로 누웠다.[→ 옆 침대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무관심하고 자신의 일에만 관심 있는 모습이다.] 이웃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때문에 그 여자는 일자무식보다 훨씬 더 답답해 보였다.

→ 앞에서 ‘나’는 ‘물인정’ ‘무식함’ ‘잔혹성’ 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모두가 타인에 대한 관심 부족에 대한 비판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나의 답답함은 결국, 아들을 낳지 못해 죄인으로 몰리는 처지에 대한 아무런 비판적 성찰 없이, 심지어 산모들까지도 남아 선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중략)

나는 내가 낳은 첫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켄졌다. [→ 그럴 만도 하다. ‘중략’ 이전의 배경인 1980년대보다도 이삼십 년 전의 일이다.] 외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흔히 그렇듯이 그분도 아들을 기다렸을 직하고 더구나 그분의 남다른 엄숙한 해산 준비는 대를 이을 손자를 위해서나 어울림 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원한 나를 맞아 아들이는 그분에게서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잘생긴 해산 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두 개의 해산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확신 같은 게 생겼다. 때문에 인줄(= 부정한 것의 침범이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문이나 길 어귀에 건너질러 매거나 신성한 대상물에 매는 새끼줄)을 걸고 부정을 기(忌)하는[→ 꺼리거나 피하는] 삼칠일(= 아이가 태어난 후 스무하루) 동안이 끝나자 해산 바가지는 정결하게 말려서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갔다. 다음 해산 때 쓰기 위해서였다. 다음에도 또 딸이었지만 그 희색이 만면하고도 경건한 의식은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다.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다음에도 딸이었다. 네 번째 딸을 낳고는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의사나 간호사까지 나를 동정했고 나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그 경건한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이 만면했고 경건했다. [→ 30년 전의 할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이 할머니 이거 대단히 성숙한 인격체인 거다.]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었다.[→ 대단함의 종지부다. 손자라고 호들갑을 떨었다면 감동은 급감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였다.

을 잃자 급격한 갈등 상태에 빠지게 된다. 겉으로는 효부의 전형으로 추앙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치매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는 고통이 억눌려진 분노의 형태로 한계치를 향해 쌓여 간다. 어느 날 ‘나’는 자신을 효부라고 추켜세우는 파출부의 말에 반항하는 심정으로 시어머니를 학대하고는, 정말로 신경 불안 상태가 되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다. ‘나’의 상태를 염려한 남편과 친족들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한다. 남편은 적당한 요양원을 찾아다니지만 땀만 흘리며 우물쭈물할 뿐 선택을 하지 못한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요양원을 물색하러 다니던 ‘나’는 어느 집 지붕 위의 박을 보고, 예전에 시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준비하던 해산 바가지를 떠올린다. 치매가 오기 전 시어머니의 인간적인 태도를 돌이켜보던 ‘나’는 스스로의 태도를 반성하는 깨달음을 얻고 남편을 재촉해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치매 시어머니를 속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대하면서 내적 갈등에서 벗어난다. 몇 년 후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임종을 하고, ‘나’는 인간적인 성취감을 느낀다.

* 참고 자료

작품 전체 줄거리

- 1) 외화 : ‘나’는 친구와 함께 출산한 친구의 며느리를 방문했다가 친구의 태도에 충격을 받는다. 친구는 둘째도 딸을 낳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며느리에게 폭력에 가까운 모진 말을 하며 아들 낳기를 강요한다.
- 2) 내화 : ‘나’는 친구의 일을 계기로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회상한다. 시어머니는 ‘나’가 출산할 때마다 딸 아들 가리지 않고 생명 탄생을 온전히 존중하고 기뻐하는 현명하고 자애로운 태도를 보였었다. 그런 시어머니를 존경하던 ‘나’의 마음은, 그러나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제정신